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해 복구 총력 기울이나 인력·재정적 한계”

북구의회도 건의문 발표 “감당 어려운 실정”

광주시 구청장협의회가 13일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긴급 협의회를 열고 “집중 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재정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광주시 5개 자치구도 특별재

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는 집중 호우로 공공 시설 286억 원, 사유 시설 279억 원 등 총 56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1명(70대 차매 노인),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378세대 617명이며 이중 232세대 331명은 피해 복구 뒤 귀가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특별재난

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북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 있게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 조사단 12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광주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정한다.

서선욱 기자

동구 지산2동, 나는 할배요리사·생애 첫 요리 도전

광주 동구 지산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초)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할배요리사 요리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전문강사의 가정 내 성평등 교육 실시 이후 진행된 요리교실은 김영초 새마을부녀회장이 직접 기초 레시피를 소개한 후 앞치마와 주방 모자를 착용한 어르신들이 채소 손질부터 양념배합, 간 맞추기까지 직접 요리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백영철(84)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서구, 광주 최초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서구가 8월부터 4만 여권의 구독형 전자책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이번 전자책 서비스 도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독형 전자책은 도서 한 권당 대출 인원 제한이 없어 인기도서라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원활한 독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간도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 최신 도서 트렌드 등 문화 접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호 기자

남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 활발

광주 남구가 광주·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손잡고 다채로운 상생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남구청과 함께 상생협력 사업에 나서고 있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비롯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문화예술회관 등 3곳이다.

남구는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문화나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실무 협의에 나섰고, 3곳의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상생협력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해 왔다.

김민정 기자

북구, 하반기 스마트 민방위 교육 전체 대원 확대

광주 북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민방위교육(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4년차 이하 대원은 연중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온라인 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 왔다.

이번 스마트 민방위 교육은 기존 집합교육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24시간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북구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을 통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서선욱 기자

광산구, 행안부 자치단체 협업 지원 공모 선정

광주 광산구가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공모는, 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이 협업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내용.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종합 복지 계획인 늘 행복 프로젝트를 위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택관리공단, CSR Impact, 광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 송정공원 친일 잔재물에 ‘단죄문 제막’

일제 당시 설치 신사목조건물

광주시는 13일 광산구 송정공원 금선사에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에 대한 단죄문 제막식을 개최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단죄문 제막식은 지난해 8월 광주공원 사적비문에 이어 두 번째다.

제막식이 열린 송정공원 금선사는 일제 식민지시대 당시 내선 일체 강조 등 조선인의 정신개조를 위해 일본이 1941년 조성한 신사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조 건물 자체가 남아있다.

이번에 설치한 단죄문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청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13일 광산구 송정공원 내 금선사입구에서 열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단죄문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친일 인사의 행적 등이 기록됐다. 광주시는 올해 ▲원효사 송화

식 부도비·부도담 ▲너릿재 유아숲 공원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시비 ▲사직공원 인근 양파정에 걸린 정봉현·여규형·남기운·정운수 현판 ▲세하동 습항각에 설치된 신철균·남계룡 현판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지하동굴 ▲송정공원 내에 잔존하고 있는 참چه, 신목, 참도, 석등롱기단, 대웅전 앞 계단, 신주사무소, 배전, 나무아미타불탑 등 6곳 21개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사 건물인 송정공원 금선사 등의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유지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청산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야문화도시조성위 “문화전당 조직 일원화·옛 전남도청 복원”

조성사업 정상화 노력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야문화도시조성위) 정동채 위원장은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일원화하고 옛 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는 등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 강의실에서 야문화도시조성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영방향과 조성사업 비전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일 8기 조성위가 위촉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등으로부터 조성사업 상황을 보고 받고 토론을 거쳐 현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 강의실에서 조성위 운영방향과 사업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을 파악했다”며 “조성사업이 초기 계획에 비해 많이 지연된 만큼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

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야특별법)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조직구조를 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소모적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울러 “옛 전남도청이 원형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5대 문화권 사업에 조성위 역할을 집중해 속도감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정책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재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보험료 납부) vs 1.7배 183,961원 (건강보험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빈부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411,111원	214,286원	131,429원	80,000원	41,111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